

영록아! 꼭 하나 줘~

친구에게 준 건 처음이야!



채은옥

채은옥, 40주년 맞아 신곡 발표
데뷔동기 전영록과 44년 우정 과시
내달 2일 음악다방 콘서트 개최
“주변분들 덕분에 용기냈죠”



전영록

채은옥(61)은 1970년대 라이브 음악감상실에서 '여자 김정호'로 불렸다.
1973년부터 명동 오비스캐빈과 종로 헬부르 등지에서 청바지와 통기타를 메고 허스키한 음색으로 노래하며 가장력으로 손꼽혔다.
그러나 1976년 데뷔곡 '빗물'로 공전의 히트를 한 뒤 40년 동안 너장의 앨범만 냈을 뿐이다.
이중 20여 년은 공백기로 대중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
지금 세대에겐 영화 '수상한 그녀'에서 심은경이 부른 '빗물'의 원곡 가수로 더 알려졌다.
그가 데뷔곡을 낸 이래 40주년을 맞아 올해 8월 신곡 두 곡을 낸 뒤 다음 달 생애 첫 단독 공연을 개최한다.
채은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한 배경을 들려줬다.
“‘빗물’ 이후 1970년대 대마초 파동으로 10년을 쉬었고 다시 활동해보려고 ‘지울 수 없는 얼굴’을 냈는데 잘 안됐어요. 그때 음악을 접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결혼을 했죠. 결혼하면서 10여 년을 다시 쉬었고 이후 노래를 다시 시작해 간간히 무대에 올랐어요.”
그의 44년 지기인 가수 전영록은 자리에 함께해 “채은옥 씨 뉴스를 보고 선전이 ‘친구인데 난 안 했느냐’며 매일 방을 뒤져보기도 했다”고 첫

곳게 분위기를 띄웠다.
당초 채은옥은 신곡을 내면서 공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콘서트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소속사 김철한 대표가 자신감을 심어주고 일을 벌였다. 열렬하다”고 웃었다.
또다시 용기를 내는 데 있어 ‘빗물’을 재조명해준 ‘수상한 그녀’도 작은 힘이 됐다고 했다.
속스러워하는 채은옥을 위해 지원군으로 나선 건 전영록이었다.
전영록은 “채은옥은 오비스캐빈에서 양희은, 서유석 씨 등과 함께 노래해 사실 데뷔 44년째”라며 “그때 팝과 포크, 블루스를 열창하는 채은옥을 만나 나와는 데뷔 동기이자 44년 친구 사이다. 너무 노래를 잘하고 목소리가 깊어 감쪽 놀랐다. 사람들이 ‘여자 김정호’를 만나러 간다고들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자 채은옥은 “나도 이렇게 작은 예가 노래를 잘하나 싶었다”고 화답하며 “알고 보니 배우 황해, 가수 백설희 선배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더 유심히 봤다. 내가 나이를 한 살 속여서 친구를 먹었다. 실재는 내가 한 살 더 적다. 그때 난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남자 같았는데 음악을 하면서 여성스러우면 힘들 것 같았다”고 떠올렸다.
전영록은 최근 자신이 작곡한 곡을 처음으로

친구에게 선물했다고 했다.
채은옥은 “전영록이 40년 만에 곡을 준다는 건 친구로서 용서가 안 된다”며 “나도 치사해서 달란 말도 안 했는데 이번에 ‘꼭 하나 줄 수 있어?’라고 물어 겨우 한 곡 받아냈다. 빨리 녹음하라고 자주 재촉한다”고 티격태격하면서도 끈끈한 우정을 보여줬다.
11월 2일 강남구 삼성동 백암아트홀에서 열릴 채은옥의 40주년 공연은 음악다방 형식으로 꾸며진다.
채은옥은 “신곡 ‘고마워요’와 ‘입술’을 비롯해 지금껏 발표한 너장의 앨범에서 숨겨진 곡을 다시 편곡해 총 20곡 정도를 들려준다”며 “내가 정말 말 아끼는 곡들을 많이 있어 이번에 그 곡들을 끄집어낸다”고 설명했다.
공연 게스트로는 가수 유익종과 블루스 기타리스트 김복경이 함께한다. 서울 공연을 마치면 내년부터 투어도 계획 중이라고 한다.
그간 무대에 미련이 없었다는 채은옥은 “이번에 복귀하면서 날 지지해주고 밀어주는 분들이 있다는 걸 실감했다”며 “사실 내가 혼자인지 알았다. 그런데 일을 진행하다 보니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알면서 감사함을 느꼈다. 노래하고 있다는 게 행복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재기 성공한 탁재훈

“제2의 인생 사는 느낌”

MBC·tvN 등 예능·광고 잇단 러브콜
가수활동 재개 계획... “기부 콘서트 하고파”



가수 겸 방송인 탁재훈(48·사진)은 지난 3년간 방송 공백기를 보내며 데뷔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실상가상으로 도박 파문으로 자숙하던 시기 이혼이란 불행한 개인사도 겹쳤다.
1995년 1집 ‘내가 선택한 길’로 데뷔해 1998년 신정환과 함께 ‘컨츄리꼬꼬’로 큰 인기를 얻었고 TV 예능 진행자로, 배우로 전방위 활동을 하며 승승장구해온 그로서는 ‘순간의 추락’이었다.
그러나 최근 탁재훈은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5월 엠넷 ‘음악의 신 2’로 시동을 건 그는 tvN ‘SNL코리아 8’과 21일 첫 방송하는 SBS TV ‘드라이브 클럽’, 12월부터 진행할 tvN 토크쇼 ‘인생술집’(가제) 등 6개 프로그램의 MC를 꿰찼다.
MBC, tvN과 또다른 신규 예능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다.
최근 인터뷰한 탁재훈은 그간의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제2의 인생 사는 느낌이 들어요. 일도 인생도 후반전이 시작됐죠. 평소 좋아하는 축구처럼 전반전이 끝나고 15분을 쉬었으니 후반전에는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모든 걸 쏟아부으려고 해요.”
방송에 안정적으로 복귀했다는 이야기에 그는 “몇 년 전과 예능 트렌드가 달라져서 아침 프로그램까지 장르를 안 가리고 도전해봤다”며 “‘SNL코리아 8’ 크루에 합류했는데 캐릭터 강한 친구들과 생방송을 하러니 정신이 없더라. 5개월간 진행도 하고 게스트로도 출연하며 모든 걸 경험한다는 느낌으로 적응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아어 휴식 기간 예능 트렌드가 많이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출연자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한 일들을 지켜보는 관찰 예능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출연자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먹기만 하면 방송사고였죠. 또 한 프로그램 안에서 두 갈래 이야기를 교차 편집해 보여주는 패턴

도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탁재훈에게는 강한 애드립으로 인해 ‘악마의 입담’을 지녔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이에 대해 “‘악마의 재능’이란 수식어가 어디 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다”며 “사실 패턴을 잃을까 봐 방송할 때 대본을 잘 안 본다. PD들은 예측되지 않는 입담을 장점이 라고 말해주더라”고 답했다.
가장 힘든 점은 대중들의 시선이었다. 그는 현재 맞붙은 잘 안 본다.
되레 기사를 보면서 옛날에는 몰랐던 기자들에 대한 고마움을 새삼 느꼈다.
요즘은 기자들 전화와 문자에 일일이 답을 한다.
탁재훈은 가수 활동 재개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가수 겸 프로듀서 뮤지와 함께 음악 작업을 하고 있다.
곡은 나왔지만 지금은 방송 스케줄이 많아 본격적인 작업은 시작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3년 전에 성대결절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수술하는 게 좋다고 권했지만 몇 곡 정도는 녹음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신정환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다.
컨츄리꼬꼬로 함께 활동한 신정환은 2010년 도박 사건 이후 6년간 공백기를 가지고 있지만 복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싱가포르에서 아이스크림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마 본인도 방송 일을 하고 싶을 거예요. 사실 예능에서 신정환 같은 캐릭터는 드물죠. 만약에 내년에 신정환에게 복귀할 기회가 주어진다던 언젠가 수익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컨츄리꼬꼬 ‘19금’ 콘서트를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스타의 이미지에 가장 민감하다는 광고계에서도 ‘러브콜’이 시작됐다는 질문에 “금융권 광고 한번 찍은 것이다”고 에둘러 대답했다.
탁재훈은 올해로 데뷔 21주년이고 내년이면 한국 나이로 50세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Time, Program Name, and Details.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lifestyle programs.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EBS1), Time, Program Name, and Details.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lifestyle programs.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0월 20일 (음 9월 20일 乙亥)
48년생 남의 닭으로 돌리던 자기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42년생 서로 화합하니 기쁨이 넘치거나 54년생 마음에는 들겠지만 그것을 수용할 만한 여건이 안 된다.
49년생 결정적인 순간에 변하는 양태이다.
50년생 원인 분석을 투명하게 해야만 대책을 바르게 세운다.
51년생 믿음에 전제되지 않는다면 개인지 말라.
40년생 상부상조를 잘 해나가지.
41년생 만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다면 더 좋다.
42년생 서로 화합하니 기쁨이 넘치거나 54년생 마음에는 들겠지만 그것을 수용할 만한 여건이 안 된다.
49년생 결정적인 순간에 변하는 양태이다.
50년생 원인 분석을 투명하게 해야만 대책을 바르게 세운다.
51년생 믿음에 전제되지 않는다면 개인지 말라.
40년생 상부상조를 잘 해나가지.
41년생 만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다면 더 좋다.